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음에 관한 고찰 4

기독교의 죽음, 결론

죽음은 최후의 대적이지만 이미 패배당한 원수다(시 49:15, 116:7, 15).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삶이지만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부활하므로 완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로 8:38-39; 시 73:23-24).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에 관한 견해들이 모두 혼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편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죽음에 관한 태도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서로 뒤섞여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죽음은 환상에 불과하다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은 환상에 불과한 착각임을 가르쳐 마음을 혼란시켜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면 죽음을 비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이 태도는 동양의 종교 철학, 특히 힌두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서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간의 영혼이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또는 다른 유형의 존재로 들어가는 단계가 '죽음'이라고 본다.

2. 죽음은 완전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죽음은 완전한 자연 현상으로, 가능한 한 가장 평온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태도다. 불교, 유교, 금욕주의, 자연주의와 종교적인 인본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 사상은 (1)극히 자연적이며 불가피한 현실 앞에서 조종할 운명에 맡길 것을 강조한다. (2)세상의 변화와 부패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과 정신의 훈련을 요구한다. (3)자신이 이 땅 위에서 사라져 없어질 때에 자신이 기억되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을 강조한다. (4)인류의 존속과 복지를 위해서 일할 것과 자신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 발전하는 것이 인류의 유일한 존엄이라고 가르친다.

3. 죽음은 불멸의 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한 인간의 불멸의 혼이 육체와 물질적인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이다. 회암 철학, 특히 플라톤니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토착화된 유교 사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채택하였다. 결국 죽음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인간 해방의 차원에서는 환영일 만한 일이라 여긴다. 또한 육체의 세계를 떠나 영의 세계에서 더 행복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큰 위로이며, 죽음과 동시에 아니면 먼 훗날에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4. 죽음은 인간 경험의 마지막이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죽음은 한 인간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존재의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안에서 재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러한 소망은 대체적으로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이 사상은 본래 유대교에서 유래했으나 이 근본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2차전전시대, 곧 초대 유대교와 율법주의 유대교를 거쳐서 그 모양을 더욱 견고하게 갖추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과 또 그대에 개인적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다.

5. 죽음은 최종의 원수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에 공명해 주신다 신약과 신약을 근거로 하여 쓰여진 많은 기독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죽음에 관한 견해다.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 또 죽음 후의 내세관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확연히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신약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생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항상 살아야 하듯 인간은 분명히 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아멘.

오늘, 쉼날(2·3 부 가족인양예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쉼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쉼날이후 기지를 흔들던 그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장미인주일과 함께 지켜 드리기에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18~22일/a.m.4:50~5:30)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기념하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시간이 바랍니니다. 새벽 4시 50분부터 시작될 특별새벽기도회는 온 성도가 함께하며, 좌석은 금오천왕집회(단, 13교구는 대왕천왕좌석) 때와 동일합니다.

성금요일 1일 금식 및 성찬예배(22일/p.m.7:00~9:00)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하루 금식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금요일 성찬예배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찬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찬예배를 위한 말씀과 찬양이 담긴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절(다소 주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후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기념하는 부활절예배에 모두 나오십시오. 찬양예배 시에는 부활절 특별찬양 및 2011년 제2차 학제세례식(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라움)이 있습니다.

THE LORD HAS REALLY RISEN

*saying, "The Lord has really risen and has appeared to Simon."
(Luke 24:34)*

The most important question asked as a Christian is whether Christ was really raised from the dead. If He did not rise from the grave then the Christian faith is worthless and there is absolutely no hope of heaven. The good news according to Scripture is that Jesus did rise from the dead, not from any temporary sickness or paralyzing disease, but from actual death. In explaining the consequences of denying Christ's resurrection, Paul exclaims, "and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worthless; you are still in your sins. Then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have perished.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1 Cor. 15:17~20). Jesus Christ died for human sinfulness and was raised for our justification (Rom. 4:25). If Jesus hadn't conquered death then our opportunity for redemption would have perished. Even His closest disciples at first doubted His resurrection, but when they found the tomb empty and witnessed His presence they believed. The two Emmaus disciples who met Jesus on their way home concluded, "The Lord has really risen and has appeared to Simon"(Lk. 24:34). What do these words really mean?

These words about Christ's resurrection speak of lordship.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He would be crucified and raised after three days (Lk. 9:22). It wasn't until they witnessed His resurrection that they truly understood His absolute lordship. Jesus was indeed Lord of lords. The disciples doubted and underestimated Jesus before His resurrection, but His resurrection set Him apart from all others. Jesus once asked His disciples, "Who do the people say that I am?"(Lk. 9:18). His disciples answered, "John the Baptist, and others say Elijah; but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s risen again"(Lk. 9:19). Jesus' resurrection corrected the past impressions of some. He is not just a great man, or just a prophet, or just a deliverer from Roman power. He is better

than Elijah, Julius Caesar, or anyone because He is the risen lord! His lordship prevails over and beyond death.

These words about Christ's resurrection speak of life. The Emmaus disciples' past experiences spoke of death. They witnessed the betrayal, beating, and crucifixion of Jesus. They saw His sorrow as He walked to Calvary. They witnessed His suffering as everyone turned against Him (Ls. 53:3). They heard that Nicodemus took His dead body and laid it in a tomb. Their doubts on that first Easter morning were strong. They were in deep despair over what had happened. They thought Jesus' presence and power were gone. The women who came to embalm His body turned His redemption into a ritual, but His resurrection changed everything. The uniqueness of the gospel is that it brings life,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1 Cor. 15:22). Jesus conquered death to give eternal life to all who believe in Him. His life gives life.

These words about Christ's resurrection speak of love. God's love rings clear and loud in Chris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Jesus' resurrection put God's salvation plan into full action. On that very first Easter morning the world started living in the age of grace. No one knows how long this special time will last, but everyone who now accepts God's love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will receive eternal life. Our loving Lord is preparing our eternal home right now and will return to take us there, so that we can be with Him in paradise forever. Simon, Mary Magdalene and about five hundred other people saw Jesus' resurrection body. Christ's resurrection proclaims to the sinner God's great love and offers forgiveness of sin.

The living Lord Jesus loves you. The cross proves His love because He gave us everything. The resurrection guarantees Jesus Christ's power to save. Today is Easter Sunday and we can boldly proclaim that our Lord is risen indeed! 🙏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복음 24:34)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가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가치하며 천국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일시적인 병이나 마비성 질환이 아닌, 실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17~20).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롬 4:25). 만약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속량을 받을 기회를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조차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엠마오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눅 24:34)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주 되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주 되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눅 9:22).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진실로 그의 완전한 주 되심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의심하며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시켰습니다. 공생애 사역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눅 9:18)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눅 9:19)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인상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나 선지자 또는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 줄리어스 시저 또는 그 어느 위인보다 탁월합니다. 그의 주 되심은 죽음을 뛰어넘고 다스리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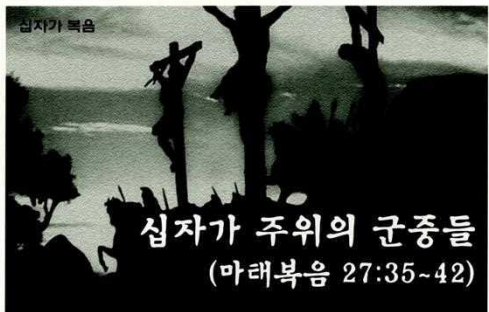
부활은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보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비애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습니다(사 53:3). 그들은 니고데모가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그들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그들은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 온 여인들은 그의 구속의 역사를 장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독특성은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생명을 줍니다.

부활은 사랑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바로 그 첫 부활절 아침, 세상은 온종의 시대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온종의 때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실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며 죄 사함을 줍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십자가가 그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여 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 (마태복음 27:35~42)

성경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세상과 맞지 않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제일 중요하며 십자가가 전부라 되어야 한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성도들도 십자가에 관한 말을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십자가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신분증 내지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십자가가 그들에게 심각할 리가 없다. 이에 비한다면 2000년 전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은 십자가에 대해 아주 심각했다.

● **인간 정치의 세력을 보여준 곳** 유대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십자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빌라도는 십자가를 싫어했다. 특히 자신이 볼 때 무죄한 한 유대 청년을 죽인다는 것이 무척 괴로웠다. 그러나 인간 정치의 세력은 빌라도도 허여금 타협하게 했다. 빌라도는 무죄한 유대 청년에게 로마 정권을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형벌을 허용했다(마 27:29,35).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민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기 때문이다(마 27:23~26). 빌라도는 이사이 선지자의 예언(사 9:6~7)을 몰랐지만 십자가에 대해 아주 심각했던 것만들은 분명했다. 십자가 주위에 있던 정치 세력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 **범죄인이 형벌을 받는 곳** 십자가 주위에는 범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있었다(마 27:38). 이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이고, 현실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인이 되어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눅 19:10).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도 심각하게 여길 수 없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겔 34:16). 십자가 주위에서 형벌을 받은 범죄인들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 십자가 주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십자가를 심각하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유대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깨뜨리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회개하였다(마 27:41). 그들은 한 영혼의 소중함(눅 17:1~2)을 모른 채 실족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들은 모든 유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외식자들이었다(요 16:1~4). 또한 민족 구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복을 제거하려던 위선자들이었다(요 11:47~50).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 **실책하는 신자들이 그곳에 있다** 십자가 주위에는 실책한 베드로가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마 26:69).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요일 1:9).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 **우는 자들이 그곳에 있다** 십자가 주위에는 로마군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난 지진과 엄청난 일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라고 고백하였다. 자신들이 직접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고백은 울부짖음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과 함께 울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이었다. 이들 모두에게 십자가는 심각했다.

십자가 주위의 군중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심각했다. 그들이 십자가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의 초점은 분명 십자가에 있었다. 이들에게 십자가는 인간 정치의 세력이었고, 범죄인이 당하는 끔찍한 형벌이었고, 자신의 정복을 제거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의 표시였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전혀 관심 밖의 문제가 아닌가? 이용가치가 있을 때에만 십자가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십자가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한다.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 보혈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②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막 14:41)고 마지막 때를 알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막 14:42, cf. 마 26:46).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4:31에 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에 이미 겐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막 14:36; 눅 22:42; 마 26:42)처럼 순종할 뿐이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14:30에서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인 오겔들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재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밝히셨는데, 이 말씀 중에 “이 세상의 임금”은 곧 마가복음 14:42에 언급된 “나는 파는 자”를 상징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롯 유대(요 13:2,27)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한 절정인 갈릴리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마지막 순간을 당당하게 맞이하셨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간곡한 당부 받았음에도 잠에 빠졌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곁에 두셨다(마 14:32,34).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시침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막 14:38). 또한 예수님은 “일어나자, 가자”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 사역 초창기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고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영광과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기도하지 않자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은총의 무릎을 쉬지 않고 계신다. “예수나를 오라 하네.” 이 부르심에는 십자가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없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이가 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예상되는 것은 고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 잔인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부활의 은총과 영광이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 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시니라”(막 16:7).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행 9:6)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사람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계획이 옳으며 잘 될 거라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우리가 가진 좋은 조건들과 능력들은 방해만 될 뿐이다. 예수님이 쓰신 일문은 수가성의 여인(요 4:29), 가리사의 광인(막 5:20), 예리코의 사캐오(눅 19:8)였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함께 가자 일어나라!” 아멘.

행복한 소망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황에 내리니 고국에 있을 때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주일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정탐사역을 나갔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베트남 사람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축회전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일경을 모두 버리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삼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공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학교 앞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집 주인이 우리를 반겼지만 손에는 스님임을 증명하는 스님 자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조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집에서 나와 발을 털었습니다. 여섯째 날 오후 사역 때 우리가 기도의 끈과 긴장의 끈을 놓기를 원치 않으셨는지 공안과 잠깐의 대화를 나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번 단기선교 기간 동안 주님은 머지않아 베트남이 복음을 할 것과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셨고, 베트남을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진록(집사, 17교구)

예수 아멘

부족한 죄인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3월 교통사고로 수 개월 동안 입원 후 퇴원하였다. 처음엔 곁을 못 걸을 줄 알았으나 네 발로, 세 발로, 두 발로 걸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걸려 사역지에 도착하였다. 피곤했지만 팀원 모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전도지를 받지 않고 '예수'란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같이 전도지를 읽고 영접기도를 올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축회 전도 중 한 젊은 청년이 포도즙을 깨고 있었다. 인사할 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려 하니 일하던 손을 멈추고 기다리라 손짓했다. 그는 들어가서 손을 씻고 나와 우리가 전하여 주는 복된 소식을 다 듣고 영접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였지만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하여 가슴이 뭉클하였고 우리의 부족한 언어를 타하였지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었다.

송영준

(집사, 23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4일(목) ~ 4월 21일(목)	청년1부 2팀	유정욱

선교지를 품는 행복

작년 여름에 선교를 다녀온 이후 심신이 지쳐 있어 올해 선교는 업무조차 내지 못하던 내게 주님은 다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 가고자 하는 마음과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고민과 갈등으로 포기하려 할 때 주님은 강하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감사의 눈물로 인정하게 하심으로 평안과 감사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나의 생각과 염려와 고민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모든 여건을 너무나 쉽게 열어 주신 주님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그 이후 준비하는 석 달 동안 선교지를 다시 깊이 품게 하였다. 진심으로 행복했던 천국이 있음을 고백한다.

정은숙(집사, 6교구)

사모함, 은혜 내려 주심

가는 첫날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말씀과 기도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공안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사역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매 순간 기도하며 말씀 보는 가운데 사역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복음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셨다.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영혼 구원의 사모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 내려 주심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였다.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라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것이다.

현남수(성도, 청년부)

언제나 선교사로 나가

복음 전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선교사로 보내 주신 것 감사하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파 수송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불쌍한 영혼을 구하려 이곳까지 보내 주신 것 감사하다. 공랑에서 7시간 걸려 우리의 사역지로 왔고, 그곳에 도착하니 매우 추웠다. 우리 팀은 한 마을 한 뜻이 되어 기도하며 첫 사역을 시작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님은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학교사역을 허락하시어 이런 생명을 만났다. 그들은 순박하고 눈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어린 아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어린이들이 받은 복음이 이곳에 퍼져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또 사역 중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열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만났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를 보니 나는 화가났다. 종족한 삶에도 감사치 못하고 내 기도만 주님께 아뢰는 것을 화가냈다. 나는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입의 말과 생각을 주종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언제나 선교사로 나가 복음 전하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주 은혜에 감사한다.

이연애(집사, 9교구)

본당설비 전면교체 및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기간 : 4월 18일 ~ 6월 30일

본당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냉난방기, 공조기, 파이프, 전기 설비시설이 교체된 지 24년이 지났다. 많이 노후되어 이번에 전면 교체에 들어간다. 아울러 본당 지하 1층에 위치한 모든 장소의 리모델링 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본당 1·3층의 화장실도 순차적으로 개조할 것이다.

이에 내일(18일)부터 지하 1층은 전면 폐쇄된다. 따라서 그동안 지하 1층 공간을 사용했던 각 찬양대는 당분간 별도 공지된 곳에서 모이며 외선부는 제2교육관 3층으로 집회장소가 변경된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본당은 물론 지하 1층의 공간도 훨씬 넓어지고 쾌적해질 것이다.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히 13:18).

집회실 변경 (24일부터 실시)

당동부	충원복지관 지하 2층
외선부	제2교육관 3층

새가족양육부 소로자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늘 교회를 다녔지만 이사와 긴 유학생활, 사회생활로 인해서 한 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여러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늘 갈급한 심정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근처의 중연교회를 알게 되었고, 청년부에 나가며 새가족 등록을 하고 양육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작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성장하여 말려진 사명에 충실이 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김예지)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고 지금은 그 용기요 인해 조금씩 변하는 게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 뿐인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함과 함께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우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을

니다. 무한한 사랑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씩 변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과 불평분이었던 저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무한한 사랑 주시는 우리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박은미)

교회란 곳에 처음 왔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겠지만 일단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작은 아무 것도 모르지만 일단 믿음을 시작했으니가 열심이 다니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생길터라 굳건히 믿고 열심이 다 나려고 합니다. (백송애)

나쁜꿈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겸손하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균)

아내가 중연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애써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와 대화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영원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알고 대화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위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배수진)

사순절을 읽자 (6)

고난 주간

고난주간은 사순절 절기 내에 포함된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간이다. 이러한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지켜지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 6:3-5, 고린도전서 11:23-26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난주간이 전교인의 공식적인 절기로 공개적으로 지켜진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신앙 자유령이 포고된 이후였다. 예수님 상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 입성, 성전 축성, 겔람산 강화, 성만한 재정, 셋새마네 종신의 기도, 제마와 심문, 십자가 처형과 장사 등 그야말로 예수 상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요,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들이 속박이게 전개되었다. 이에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유족적으로 담겨 있는 이 주간의 각 요일마다 각각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내내 염속한 절기로 보내게 된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연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963	이수민	영아부	15	송성	1984	김혜연	중동부	14	고진순
1964	이리진	영아부	15	송성	1985	윤미정	양육반	23	이민숙
1965	한현희	영아부	21	송성	1986	김하정	초등1부	23	정병준
1966	윤정민	양육반	6	오정현	1987	정현수	고동부	17	김명식
1967	심규정	양육반	22	이수한	1988	서범석	양육반	12	김 신
1968	이상훈	양육반	6	김희동	1989	이명화	양육반	21	정기순
1969	오용숙	23	최희자	1990	김하늘	초등1부	5	정근혜	
1970	이분진	9	한근우	1991	김한빛	초등1부	5	정근혜	
1971	정규정	양육반	24	박근민	1992	정수민	초등2부	21	박창서
1972	이복희	양육반	8	박승준	1993	정창훈	초등1부	21	박창서
1973	이진희	양육반	23	김정연	1994	정영민	초등1부	21	정기순
1974	배희정	중동부	2	박재경	1995	조종신	양육반	15	박영민
1975	유정환	양육반	14	김현식	1996	이재훈	23	박노익	
1976	최창아	양육반	23	원민근	1997	송영진	양육반	10	김미영
1977	이완영	양육반	16	이도현	1998	최현배	대학부	9	홍순길
1978	지진	외선부	25	이득혜	1999	송민지	양육반	10	
1979	캐드라	외선부	25	이득혜	2000	이민준	양육반	9	최영순
1980	김여정	사랑부	25	김현아	2001	전유분	15	조영란	
1981	박순철	양육반	9	박준호	2002	안준모	양육반	9	이정숙
1982	오진경	양육반	16	윤신아	2003	정은선	양육반	5	김명식
1983	유미화	양육반	1	김근아					

교회소식

Copyright © 2011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